

‘자음-ㅎ’ 連鎖에서의 音變化

鄭 仁 浩

1 서 론

3 서북·서남방언과의 대비

2 중부방언에서의 변화

4 결 론

1 서 론

일반적으로 음소들은 일정한 제약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연결되는데 이를 흔히 ‘音素配列 制約’(또는 音韻連鎖 制約)이라고 일컫는다. 국어(중부방언)에서 ‘스, 츠, 쟈’와 반모음 ‘y’의 연결이 불가능하다는 제약이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고의 대상이 되는 다음의 어형들도 자음 연결에서의 음소배열 제약과 관련하여 한두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보여준다.

㉠ 발해/paɦe/(渤海)

㉡ 박해/pak^hɛ/(迫狹)

첫째, ‘ㄹㅎ’ 인쇄와 달리 ‘ㄱㅎ’ 연쇄는 불가능하다. 이는 ‘자음-ㅎ’ 연쇄가 선행 자음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변화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발해’의 ‘ㄹㅎ’ 연쇄는 ‘ㄹC’(C ‘ㅎ’ 이외의 자음) 연쇄와 그 성격이 다르다. 즉 ‘ㄹC’ 연쇄는 음절 경계가 ‘ㄹ’과 ‘C’ 사이에 놓이는 데에 반해(ㄹ\$C), ‘ㄹㅎ’은 두 자음 사이에 음절 경계가 놓인다고 보기가 힘들다. 만약 ‘ㄹ\$ㅎ’과 같이 음절 경계가 놓인다면 음절말에서 ‘ㄹ’이 음성 [r]로 실현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국어에서 음소적인 ‘자음-ㅎ’ 연쇄

는 음성적으로 특이한 실현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에 초점을 맞추어 국어(중부방언)에서 보이는 ‘자음-ㅎ’ 연쇄의 음변화 양상을 고찰할 것이다.¹⁾ 나아가 중부방언을 사이에 두고 있는 두 방언(서북방언과 서남방언)²⁾에서의 변화도 함께 고찰하여 세 방언이 보이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려 한다. 그럼으로써 그들의 방언학적인 관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2. 중부방언에서의 변화

‘자음-ㅎ’ 연쇄의 변화를 논하기에 앞서 현대 중부방언에 ‘자음-ㅎ’ 연쇄가 실현되는 양상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 (1) ㄱ 사람한테 손하고 발하고
 ㄴ 심심하다 단념한다 당당하다 망한다 튼튼하다 칠한다 일한다
 ㄷ 삼학년 지난해 친할머니 단호박 올해 물혹
 ㄹ 점화 당황 농협 친형 분홍 불효 결혼 발화

먼저 (1)에 제시한 예들이 ‘자음-ㅎ’ 연쇄가 가능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 1) ‘자음-ㅎ’과 ‘ㅎ-자음’은 그들 연쇄에 ‘ㅎ’이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함께 고찰하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르겠다 특히 국어에서 ‘장애음-ㅎ’과 ‘ㅎ-장애음’은 모두 격음으로 실현된다는 점에서도 이들 연쇄의 유사성은 어느 정도 드러난다 하지만 전자에서는 ‘ㅎ’이 음절 초성이고 후자에서는 ‘ㅎ’이 음절 종성이라는 차이가 있는바, 역사적으로 음절의 초성과 종성이 가지는 제약은 매우 다르다. 따라서 ‘자음-ㅎ’과 ‘ㅎ-자음’의 변화 양상은 사뭇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후자의 변화에 대한 고찰은 별도의 논문으로 미루려 한다.
- 2) 대상이 되는 자료는 拙稿(2004)를 위해 조사된 지역어(原平北 龍川地域語와 全南和順地域語)의 어형들이며, 기타 방언(동북방언, 동남방언, 제주방언 등)에까지 넓혀 논의를 진행시키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필자가 게으른 소치임을 밝혀둔다. 그리고 용천지역어와 화순지역어를 각각 서북방언과 서남방언이라고 확대하여 칭할 수 있는냐가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본고의 주제에 한해서는 용천지역어가 서북방언의 변화(방언연구회 2001:237)에서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다 또한 《한국방언자료집 V·VI(전북·전남편)》을 보면 서남방언의 여타 지역어가 화순지역어와 동일한 양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용천지역어와 화순지역어의 어형을 논하면서 서북방언과 서남방언이라고 칭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 판단한다

이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겠다 ㉠ ‘한테, 하고’ 등의 조사가 체언에 결합할 때(1ㄱ), ㉡ ‘하-’가 결합할 때(1ㄴ), ㉢ ‘ㅎ’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결합된 복합어(1ㄷ), ㉣ 후행요소가 ‘ㅎ’으로 시작하는 한자어(1ㄹ) 등이 그것이다. 결국 ‘자음-ㅎ’ 연쇄가 가능한 경우는 자음과 ‘ㅎ’ 사이에 境界(形態素 境界, 單語 境界 등)가 개재하는 경우로 한정할 수 있겠다³⁾ 이를 통해 形態素 內部에서 ‘자음-ㅎ’ 연쇄를 관찰할 수 있는 어형은 현대 중부방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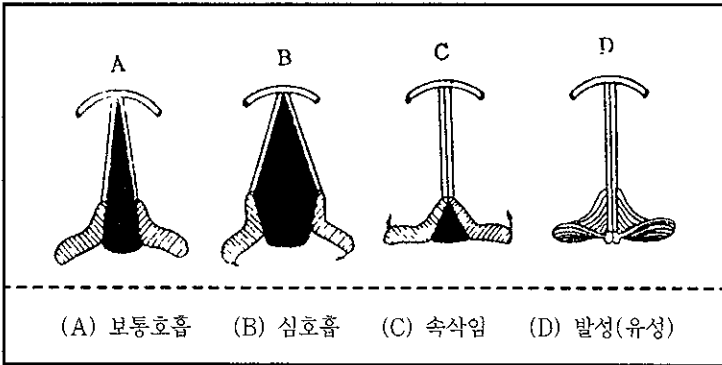
그리고 (1)의 예들을 통해 ‘자음-ㅎ’ 연쇄에는 일정한 音韻論的 制約이 가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선행요소의 말이 공명음(ㄱ, ㄴ, ㄷ, ㄹ)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선행요소의 말이 장애음일 때에 ‘자음-ㅎ’ 연쇄가 가능한 예는 현대 중부방언에 존재하지 않는다

‘자음-ㅎ’ 연쇄는 音聲的으로 (2)와 같이 실현된다

(2) [ʃamhwa](침화) [noŋhyɔp](농협) [taŋhwan](당황) [punhoŋ](분홍)
[ʃʰiŋhyɔŋ](친형) [kyɔrhon](결혼) [purhyo](불효)

필자는 이를 3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려 한다 첫째, ‘ㅎ’은 [h]로 실현된다 그런데 이현복(1989:109)에 따르면 유성음 사이에서 ‘ㅎ’은 무성 마찰음 [h]뿐만 아니라 유성 마찰음 [ɦ]로 나기도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Catford(1988:54)에 따르면 이 때의 ‘ㅎ’은 ‘무성음’(voicelessness)이나 ‘유성음’(voice)이 아니라 ‘속삭이는 소리’(whisper)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마찰이 일어나는 성문의 모양이 ‘보통호흡’을 위한 (A)이기보다는 ‘속삭임’을 위한 (C)라고 할 수 있는데〈그림 1〉 이는 성문의 간격이 좁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 3) 형태소 경계와 단어 경계의 차이에 대한 논의는 본고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편의상 이를 형태소 경계라고 하여 둔다
- 4) 현대국어의 용언 어간은 ㄴ, ㄷ, ㄹ로 끝나기도 하는데(㉤ 많- 풀- 등) 이들은 모음 어머기 후행하면 이론적으로 각각 ‘ㄴㅎ, ㄷㅎ’의 자음연쇄를 형성할 수 있다 하지만 중부방언에서 이 경우 ‘ㅎ’은 음소적으로 탈락하여 자음-ㅎ 연쇄가 불가능하다 〈표준발음법〉에서도 “4 ㅎ(ㄴ, ㄷ)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제12항)라고 하고 있다



〈그림 1〉 聲門 模樣(이현복(1989 119)에서 인용)

둘째, 선행하는 공명음 ‘ㅁ, ㅇ, ㄴ, ㄹ’은 각각 유성음 [m, ŋ, n/ɲ, r]로 발음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ㄴ’이 치경음 [n]뿐만 아니라 경구개음 [ɲ]으로도 실현되며 ‘ㄹ’이 설측음 [l]이 아닌 탄설음 [r]로 실현된다는 점이다.⁵⁾ 현대국어에서 ‘ㄴ’이 경구개음 [ɲ]으로 실현되는 환경은 ‘i, y’가 후행하는 경우이다. 또한 탄설음 [r]이 실현되는 환경은 두 모음 사이에 한 개의 ‘ㄹ’이 존재하는 경우이며 자음이 후행할 때에는 [l]로 실현된다. 그런데 ‘ㄴ, ㄹ’은 자음 ‘ㅎ’이 후행하는데도 ‘ㅎ’이 없는 경우와 동일한 변이음 실현을 보이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후행하는 ‘ㅎ’이 선행 자음의 변이음 실현에 장애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선행 자음의 변이음 실현에 있어서 ‘ㅎ’은 투명한 썸이다.

셋째, 그 음성적 실현 양상을 볼 때 선행하는 공명음은 후행하는 자음 ‘ㅎ’의 존재와 상관없이 다음 음절의 초성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⁶⁾ 다시 말해 (2)의 예들은 다음과 같은 음성적인 음절 경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5) 이현복(1989 110)에 ‘ㄹ’은 ‘ㅎ’이 뒤따를 때에 ‘튀김소리’(탄설음)으로 발음된다고 한 바 있다. 예) 철학/chalhak/[chalhak], 일하다/ihada/[i rhada]

6) 모음이 후행할 때 ‘ㅇ’이 선행 음절의 종성이 되는지, 아니면 후행 음절의 초성이 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은 ‘ㅎ’이 후행할 때에도 유효하다. 본고에서는 잠정적으로 후자의 견해를 따르는데 이는 논의의 편의를 위한 선택임을 밝혀둔다.

- (2) [tʃə \$mhwə] (침화) [no \$ŋhyəp] (농협) [ta \$ŋhwaj] (당황) [pu \$nhon] (분홍)
 [tʃʰ \$ŋhyəp] (친형) [kyə \$rhon] (결혼) [pu \$rhyo] (불효)

그런데 국어에서 두 개의 자음이 동시에 한 음절의 초성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로 남을 수 있다. 필자는 ‘ㄹㅎ, ㅇㅎ, ㄴㅎ, ㄷㅎ’이 각각 두 음성이 아니라 하나의 음성 [m^h, n/n^h, ŋ^h, r^h]로 실현될 수 있으리라 판단하며 그러기에 한 음절의 초성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ㅎ’은 독자적인 음성의 지위를 버리고 자음에 얹혀서 발음되는 음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음성적 변화가 일어난 후에야 ‘ㄴ, ㄷ’이 ‘ㅎ’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후행 모음에 따른 변이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⁷⁾

‘ㅎ’과 관련된 이러한 현상이 가능한 이유는 ‘ㅎ’의 특별한 음성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이희승(1959:162-3)에 ‘ㅎ’의 성질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좀 긴 듯하지만 여기에 옮기려 한다

종류가 다른 두 개의 자음을 연결시켜 놓으면, 그 소리가 언제든지 각각 특유한 음가(音價)를 가지고 순차적(順次的)으로 계속하게 되는 것이 보통 현상인데, 이 ‘ㅎ’만은 다른 소리와 결합하여, 두 음을 순차적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그 음과 섞이어서 아주 단일(單一)한 한 개의 새 음을 만들어내는 특징을 가졌다 즉 “ㅎ 소리는 다른 자음과 합할 때에, 그 소리 속에 섞이어 버리는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 모든 자음은 구강(口腔=입안)에서 나는 소리인데, ㅎ”만은 후두(喉頭=성대(聲帶)있는 부분)에서 공기가 마찰(摩擦)되어 나는 소리다. 구강(口腔)과는 비교적 거리(距離)가 먼 기관에서 발하는 소리다 그리하여, 먼 거리에 있는 기관 끼리는 동시에 작용할 수 있고, 따라서 “ㅎ”만은 다른 자음과 동시에 발음할 수 있다 동시에 발음되는 두 가지 소리는 서로 섞이(混奏)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ㅎ”은 다른 모든 자음과 섞이는 성질을 가졌다 그리고 섞이는 것은 시간의 선후가 없다

이 논의에 따르면 ‘ㅎ’은 口腔音과 거리가 먼 喉頭에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구강음과 ‘섞이어’ 동시에 조음될 수 있다는 것이다

7) 임석규(1999:52)에 따르면 경북 영주시역어에서 ‘ㅎ’[u]은 모음뿐만 아니라 ‘ㅎ’이 후행할 때에도 탈락한다고 하는데 이 때 ‘ㅎ’의 음성적 실현은 중부방언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음성적으로 ‘ㅎ’과 ㅇㅎ’은 성문 모양에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는 완전히 동일하다 그래서 모음 앞에서 ‘ㅎ’이 탈락할 수 있다면 ‘ㅎ’의 ‘ㅎ’도 충분히 탈락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 조음음성학적 설명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폐에서 시작한 기류가 하나의 음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3개의 調音器官(organs of speech)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發動部[橫膈膜, 肺, 氣管], 發聲部[喉頭, 聲帶], 發音部[咽頭腔, 口腔, 鼻腔]가 그것이다(이현복 1989:117-23).⁸⁾ 그러나 ‘ㅎ’만은 發音部の 작용이 없이 發動部和 發聲部の 작용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성이다. 따라서 ‘ㅎ’은 발음부가 작용하는 소리와 동시조음되어 하나의 음성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음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때 ‘ㅎ’은 발음부가 작용하는 음성을 낼 때의 聲門 模樣만을 결정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축소된다. 예를 들어 ‘ㅎ’은 평장에음 ‘ㅂ, ㄷ, ㄱ, ㅅ’과 결합하여 격음으로 실현되는데 평음과 격음의 차이는 성문 모양의 차이로 설명된다.⁹⁾ 결국 ‘ㅎ’은 평음과 결합하여 격음으로 실현될 때 성문 모양만을 바꾸는 역할을 담당한 셈이다. 성문 모양의 이러한 변화는 ‘공명음-ㅎ’ 연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다만 성문 모양이 ‘속삭임’으로 바뀐다는 점이 차이이다. 여기에서 음성학적 용어를 빌리자면, ‘공명음-ㅎ’ 연쇄는 ‘속삭이는 유성음’(whispery voice) 또는 ‘중얼거리는 소리’(murmur)인 [m^h, ŋ^h, n/n^h, r^h]에 가깝게 발음되는데 이 때 ‘속삭임’ [h]의 영향으로 공명음 ‘ㅁ, ㅇ, ㄴ, ㄹ’의 [유성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면 현대국어에서 ‘자음-ㅎ’ 연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㉞ ‘장애음-ㅎ’ 연쇄는 전혀 불가능하다
- ㉟ 형태소 내부에서는 ‘공명음-ㅎ’ 연쇄도 불가능하다.
- ㊱ 형태소 경계에서 가능한 ‘공명음-ㅎ’ 연쇄는 린 음성으로 실현된다

이제부터는 후기중세국어를 출발점으로 삼아 ‘자음-ㅎ’ 연쇄가 어떠한 변화를 경험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8) Catford(1988 36)에서는 이를 음성의 기본 요소(basic component)라고 하여 각각 ‘initiation, phonation, articulation’이라고 부르고 있다

9) Catford(1988:57-8)에서는 평음과 격음의 차이를 각각 성문이 약간 열리고(ightly open) 넓게 열리는(wide open) 차이로 설명한다. 이 때 넓게 열린 성문은 유성화하는(vibrating) 데에 얼마간의 시간이 소요되어 격음이 된다고 한다

먼저, 後期中世國語에서는 形態素 內部에서도 ‘자음-ㅎ’ 연쇄가 가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⁰⁾

- (3) ㄱ 골희-(擇) 골흠(紐) 골희(環) 닐흔(70) 달하-(前) 설흔(30)
 알히-(痛) 불휘(根) 올흔(右) 올히(鴨) 일히(狼) 일흠(名)
 힐흠(씨름) 출하리(寧) 열흘(10일)
- ㄴ 논호-(分) 든허다-(崩) 빈혀(釵) 안해(妻) 전후-(比)
- ㄷ 동희(盆) 방하(砒)

물론 형태소 내부에서 ‘장애음-ㅎ’ 연쇄는 발견되지 않는다 선행 자음이 공명 음일 때에만 이 연쇄가 가능한 것이다. 다만 ‘ㄴㅎ’이나(3ㄴ) ‘ㅇㅎ’(3ㄷ)보다 ‘ㄹㅎ’(3ㄱ) 연쇄를 보여주는 어형들이 훨씬 많으며 ‘ㄹㅎ’ 연쇄는 중세국어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이에 대한 필연적인 이유를 찾기는 힘들다

후기중세국어에 보이는 ‘공명음-ㅎ’ 연쇄가 적어도 近代國語 初期(17세기)까지는 별다른 동요의 조짐을 보이지 않음을 문헌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다가 18·9세기 자료에서 ‘ㅎ’이 탈락하는 소수의 예가 발견된다(4)

- (4) 고름(紐)〈倭上 46〉 오리(鴨)〈倭下 21〉 뿌리(根)〈歌曲 127〉
- (5) ㄱ 오리(鴨) 고리(環) 고름(紐) 다리오(煎) 농의(盆)
 방아(砵) 견누오(比)
- ㄴ 안희(妻) 올흔(右) 갈희오(擇) 논호오(分) 일희(狼) 일흔(70)
 일흠(名) 문허지오(崩) 썬희(根) 빈혀(釵) 설흔(30) 열흘(10일)
- (6) 일흔(70) 설흔(30) 열흘(10일)

그리고 19세기말에 Underwood가 口語를 위주로 편찬한 《韓英字典한영준언》(1890)에서는 ‘ㅎ’이 표기되지 않은 예들이 다수 보이는 것으로 보아(5ㄱ) ‘공명음-ㅎ’ 연쇄에서 ‘ㅎ’이 탈락하는 변화가 꽤 진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물론 여기에서도 ‘공명음-ㅎ’ 연쇄의 표기를 보이는 예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점은 사실이다(5ㄴ). 하지만 표기의 보수성을 감안할 때 (5ㄱ)에 보이는 표기

10) 여기에는 형태소 결합에 의해 형성된 어형들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자음-ㅎ’ 연쇄에 한정한다면 이들이 형태소 내부라고 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으리라 판단한다 그리고 본고의 문헌 자료는 유창돈(1964)와 홍윤표 외(1995)를 주로 참고하였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편의상 출처를 생략하고자 한다

가 당시의 언어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이를 통해 近代國語 後期(19세기경)에 ‘공명음-ㅎ’ 연쇄에서 ‘ㅎ’이 탈락하는 변화가 꽤 활발했다고 추정할 수 있겠다 특히 現代國語에서 (6)에 제시한 몇 예를 제외하고는 ‘ㅎ’이 모두 탈락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형태소 내부에서 ‘공명음-ㅎ’ 연쇄가 나타나는 또 다른 경우로 어간말 자음군을 들 수 있다.

- (7) ㄱ 하늘(天) ㄱ 길(道) ㄱ 숲(秋) ㄱ 뽕(梁) ㄱ 촌(村) ㄱ 뜰(庭) ㄱ 늪(陰)
 ㄱ 울(州) ㄱ 서울(京) ㄱ 녹(菜) ㄱ 밀(小麥) ㄱ 알(卵) ㄱ 팔(臂) ㄱ 손(肌)
 ㄱ 낫(刀) ㄱ 괘(槓) , ㄱ 끈(纜) ㄱ 안(內) , ㄱ 닭(雌) ㄱ 울(類)
 ㄱ 하늘해<석六 19>
 ㄱ 여섯 하늘래<석六 35>
- (8) ㄱ 끓-(沸) ㄱ 앓-(痛) ㄱ 굵-(未滿) ㄱ 잃-(失) ㄱ 울-(可) ㄱ 닳-(磨) , ㄱ 많-(多)
 ㄱ 글호미 다외음<능八 102>

이들은 15세기 어형인데 각각 체언(7)과 용언(8)이다¹¹⁾ 이 때 선행 자음은 모두 공명음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¹²⁾ 그리고 이들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7ㄴ)나 어미(8ㄴ)가 결합할 때 ‘공명음-ㅎ’ 연쇄를 형성하게 된다. 체언의 경우에 말음 ‘ㅎ’은 근대에 들어서 대개 소실하게 되는데(이기문 1972 153) 일부는 15세기에 이미 동요를 보이기도 한다(7ㄴ´), 하지만 용언의 경우에는 근대국어 시기까지 그 변화를 시사하는 문헌상의 예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현대국어에서도 표기상으로는 ‘ㄹㅎ, ㄴㅎ’ 연쇄의 변화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 다만 <표준발음법> 제12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현대국어에서 이 자음군의 ‘ㅎ’은 탈락한다

우리는 국어사의 어느 시기에 어간말 자음군의 ‘ㅎ’이 탈락하는 음변화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어느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 즉 15세기에 체언어간말의 ‘ㅎ’이 일부 탈락하는 것을 ‘공명음-ㅎ’

11) 어간말 자음으로 ‘ㅎ’만이 존재하는 ‘울(上), 뿡(山), 냇(川) , 동-(好), 넣-(入)’ 등의 어형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은 본고의 주제와 무관하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12) ‘ㅎ’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과 ‘ㅎ, ㅁ’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은 존재하지 않는데 이에 대한 필연적인 이유를 찾기는 힘들다

연쇄에서 ‘ㅎ’이 音韻論的 要因에 의해 탈락하는 音變化의 단초로 해석할 수 있으나 논란이 될 수 있다. 필자는 다음 몇 가지 이유에 의해 이것을 音變化가 아닌 語幹 異形態의 單 化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리라 믿는다. 첫째, 우리는 15세기에 존재하는 ‘하느래~하늘해’의 쌍형뿐만 아니라 ‘하늘와~하늘과’의 쌍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만약 ‘하느래’가 ‘하늘해’의 음변화형이라고 한다면 ‘하늘와’는 ‘하늘과’의 음변화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어사에서 후자의 변화(ㄱ>ㅇ)를 인정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하느래’는 ‘ㄱㅎ’ 자음연쇄에서 ‘ㅎ’이 탈락한 것이 아니라 ‘하늘와’와 동일한 기제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3)에서 보듯이 어중에서 공명음-ㅎ 연쇄는 15세기에 전혀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셋째, (8)의 예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용언어간말 자음군 ‘ㄴ, ㄷ’은 모음 어미가 결합할 때 전혀 ‘ㅎ’이 탈락하지 않는다. 체언과 용언의 이러한 차이는 ‘공명음-ㅎ’ 연쇄의 변화가 音韻論的인 환경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존형태소인 용언과 달리, 자립형태소인 체언은 ‘ㅎ’이 탈락하는 이형태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차이가 용언과 체언에서의 변화를 다르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이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체언어간말의 ‘ㅎ’ 탈락이 어간 이형태의 단일화에 의한 것이라면 ‘공명음-ㅎ’ 연쇄의 음변화 시기는 현대국어 이전의 어느 시점까지 늦춰질 수밖에 없는데 필자는 어중에서의 변화 시기(19세기경)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측한다.

요컨대 形態素 内部에서 ‘공명음-ㅎ’ 연쇄는 어중이든지 어말이든지, 그 환경에 상관없이 近代國語 後期(19세기경)에 ‘ㅎ’이 탈락하는 音變化를 경험한 것이 아닌가 한다. 반면에 形態素 境界에서는 중얼거리는 소리라는 음성으로 音素的인 連鎖가 지속되고 있다.

이제까지 ‘공명음-ㅎ’ 연쇄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제 ‘장애음-ㅎ’ 연쇄의 변화에 대해 논의할 차례이다. 후기중세국어에서 ‘장애음-ㅎ’ 연쇄 표기는 ‘ㅎ-(爲), -히’ 등이 결합한 어형(9ㄱ)과 복합어·한자어(9ㄴ)에서 주로 발견된다.

- (9) ㄱ. 급ᄃᆞ다(急) 넉넉ᄃᆞ다(裕) 멀덜ᄃᆞ다(常) ㄹᄃᆞ다(淨) ; 급히(急)
 ㄴ 일히 문형 닷흙 . 족하(族下) 박하(薄荷) 석회(石灰)

그런데 이러한 표기가 음소적인 '장애음-ㅎ' 연쇄를 반영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필자는 두 가지 이유에 의해 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한다. 먼저, 15세기 표기법이 音素主義 원리를 취하고 있다. 다음으로, 'ㄹᄃᆞ다'의 현대어형이 '깨끗하다[깨뜨타다]'인 점을 감안하면— 'ㅅ'이 'ㅌ'으로 실현— '장애음-ㅎ' 연쇄에서의 격음화가 적어도 음절말 'ㅅ' ㄷ' 변화(근대국어) 이후에 일어났다고 추정할 수 있다¹³⁾ 그렇다면 15세기에 'ㅎ' 앞에는 休止(pause)가 있었다고 해석하든지, 아니면 '장애음-ㅎ' 연쇄가 음소적으로 가능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적어도 '족하, 박하' 등의 한자어에서는 'ㅎ' 앞에 休止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낮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장애음-ㅎ' 연쇄가 15세기에는 가능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즉 15세기에 '장애음-ㅎ'은 '장애음\$ㅎ'의 음절 경계를 가지고 연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때의 'ㅎ'은 음소적으로든지, 음성적으로든지 하나의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표기상 드러나는 '장애음-ㅎ' 연쇄를 음소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관계 없이, 적어도 後期中世國語 이전부터 이 연쇄에 활발한 변화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 이 연쇄는 경계를 사이에 두고 나타날 뿐 형태소 내부에서 이 연쇄를 반영하는 표기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피·사동접미사 '-히-, -호/후-'가 결합된 어형은 후기중세국어에 격음으로 표기된다¹⁴⁾(예 머키-(먹히-), 구피-(굽히-), 구티-(굳히-), 느초-(낮

13) 'ㄹᄃᆞ지(깨끗이)〈蒙 2〉'를 참고할 때 'ㄹᄃᆞ다'의 선대형은 '*ㄹᄃᆞᄃᆞ다'로 재구할 수 있겠다 결국 이 단어에서 'ᄃᆞ다'에 선행하는 'ㄹ'은 'ㅅ>ㅌ'의 변화를 경험했음을 알 수 있다

14) 피·사동접미사는 형태소 분석과 관련하여 특이한 존재임에 틀림없다 예를 들어 15세기 어형 '볼기다, 돌기다'가 16세기 이후에 각각 '볼키다, 돌키다'로 바뀌는 것을 보면 피·사동접미사를 하나의 독립된 형태소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현대국어에서도 '먹이다'의 '-이-'는 분석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런데 음운 변화에서는 이들이 결합된 어형이 마치 하나의 형태소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음라우트도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피·사동접미사의 이형태가 음운론적으로 예측하기 힘들다는 점이 그 한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한

추-)¹⁵⁾ 등) 셋째, 중세국어에는 'ㄱㅎ-~ㄴㅎ-'가 쌍형으로 존재하는데 이는 'ㄷㅎ' 연쇄가 ㅌ'으로 변화함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近代國語 시기의 문헌에서는 부사화점미사 '-히'가 결합할 때 'ㄱㅎ, ㅅㅎ' 등의 연쇄가 각각 'ㄱㅋ, ㅅㅍ'으로 표기된다(10) 후기중세국어 문헌과 비교할 때 이는 근대국어에서 '-히'가 결합할 때 '장애음-ㅎ' 연쇄가 격음으로 변화했음을 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10) 극기(極)<신속 恚- 11> 급피(急)<신속 孝- 50>

現代國語에서 '장애음-ㅎ' 연쇄는 모두 격음으로 실현된다 <표준발음법> 제 12항에도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는 규정이 있다

[붙임1] 받침 'ㄱ(ㄱ), ㄷ, ㅅ(ㅅ)'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역시 두 음을 합쳐서 [ㅋ, ㅌ, ㅍ, ㅊ]으로 발음한다 ㉠ 각하[가까] 받형 [마텟]

[붙임2] 규정에 따라 'ㄷ'으로 발음되는 'ㅅ, ㅆ, ㅊ, ㅌ'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옷 흰 벌[오탄벌] 낮 한때[나탄때] 술하다[수타다]

이제 '장애음-ㅎ' 연쇄의 변화 양상을 논하기에 앞서 선행하는 장애음의 성격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자 한다. 후기중세국어에서 이 연쇄를 이룰 수 있는 장애음은 'ㅂ, ㄷ, ㄱ, ㅅ'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보다 앞선 시기에는 'ㅆ'도 'ㅎ'에 선행할 수 있었음을 '느초-' 등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다 결국 앞선 시기에서 가능했던 'ㅆㅎ' 연쇄가 후기중세국어에서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는 음절말의 'ㅆ>ㅅ'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근대국어에서 음절말의 'ㅅ'이 'ㄷ'으로 변화하면서 'ㅎ'에 선행하는 장애음은 'ㅂ, ㄷ, ㄱ'에 한정된다 'ㅎ'에 선행하는 장애음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

15) '느초-'를 비롯한 마초-, 느추-, 머추-, ㄴ초-' 등은 'ㅆㅎ' 연쇄가 'ㅊ'으로 변화했을 가능성을 밀해 준다 그리고 이들은 적어도 '장애음-ㅎ' 연쇄의 변화가 음절 말에서 'ㅆ'이 발음되는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후기중세국어 이전	후기중세국어	근대국어
ㅂ ㄷ ㄱ ㅅ ㅈ (...)	ㅂ ㄷ ㄱ ㅅ	ㅂ ㄷ ㄱ

후기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까지의 어형들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장애음-ㅎ’ 연쇄의 변화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첫째, 선행하는 장애음이 [격음성] 대립 짝을 가지는 ‘ㅂ, ㄷ, ㄱ, ㅅ’인 경우에는 후행하는 ‘ㅎ’과 결합하여 격음으로 변화한다 음성학적으로 이는 ‘ㅎ’이 그 독자성을 잃고 선행 자음과 동시조음 되어(이희승(1959:162)의 표현을 빌리자면 “섞이어”) 성문 모양만을 결정할 결과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이 때의 성문 모양은 ‘보통호흡’(또는 ‘심호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형태소 내부와 경계에서 동일하게 진행되는 데 다만 변화 시기에는 차이가 있다. 둘째, 선행하는 장애음이 [격음성] 대립 짝을 가지지 못하는 ‘ㅅ’인 ‘ㅅㅎ’의 변화 방향을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물론 형태소 경계에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ㅅ’이 ‘ㄷ’으로 변화하여 ‘ㅅㅎ>ㄷㅎ>ㅌ’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연쇄의 특이한 변화를 보여주는 17세기 자료가 존재한다

- (11) ㄱ ㅎ 되 다솥<脾瘟 6a>
 ㄴ ㅎ 되 닥곱<救荒 12b>

(11)에서 보이는 ‘다솥’과 ‘닥곱’이 ‘닷홉’의 변화형이라면 이는 ‘ㅅㅎ’이 ‘ㅎ’탈락에 의해 ‘ㅅ’으로 변화할 수도 있고(11ㄱ) ‘ㅎ>ㄱ’에 의해 ‘ㄱ’으로 변화할 수도 있음을(11ㄴ) 보여준다. 그런데 ‘ㅅㅎ’ 연쇄의 변화 양상은 그리 간단히 논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그 변화의 가능성만을 언급하고 더 깊은 연구는 후고로 미루려 한다.

요컨대 ‘장애음-ㅎ’ 연쇄가 形態素 內部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激音化 등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形態素 境界에서도 形態素 內部에서보다 그 변화 시기가 늦기는 하지만(음절말 ‘ㅅ>ㄷ’ 변화 이후) 이와 동일한 변화가 진행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중부방언에서 ‘자음-ㅎ’ 연쇄가 어떠한 변화를 경험해 왔는지를 요약

하여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S 공명음, O:장애음, H ㅎ, S^h 중얼거리는 소리, S^h 유성음, O^h 격음)

	공명음-ㅎ(SH)	장애음-ㅎ(OH)
형태소 내부	[S ^h] /S/	[O ^h] /O ^h /
형태소 경계	[S ^h] /SH/	[O ^h] /O ^h /

形態素 内部에서 '공명음-ㅎ' 연쇄와 '장애음-ㅎ' 연쇄는 그 변화 양상이 다르다. 음성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공명음-ㅎ' 연쇄와 '장애음-ㅎ' 연쇄는 각각 [S^h]와 [O^h]로 실현된다 이들은 성문 모양에서 각각 '발성(유성)'과 '보통호흡'(또는 '심호흡')으로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음소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공명음-ㅎ' 연쇄와 '장애음-ㅎ' 연쇄는 모두 하나의 음소로 변화하는데 전자는 'ㅎ'이 탈락하고 후자는 축약되어 격음화한다는 점이 차이이다

形態素 境界에서도 '공명음-ㅎ' 연쇄와 '장애음-ㅎ' 연쇄는 그 변화 양상이 다르다 음성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공명음-ㅎ' 연쇄와 '장애음-ㅎ' 연쇄는 각각 [S^h]와 [O^h]로 실현된다 이들은 성문 모양에서 각각 '속삭임'과 '보통호흡'(또는 '심호흡')으로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음소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공명음-ㅎ' 연쇄는 계속 유지되어 형태소 내부에서와 차이를 보인다 반면 '장애음-ㅎ' 연쇄는 형태소 내부에서와 동일하게 축약되어 하나의 음소, 즉 격음으로 실현된다

두 연쇄 모두 형태소 내부보다 형태소 경계에서 그 변화 시기가 늦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형태소 경계가 음운변화의 정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장애음-ㅎ' 연쇄보다 '공명음-ㅎ' 연쇄의 변화 시기가 늦은 이유를 분명히 밝히기는 힘들다. 다만 필자는 자음체계에서 그 한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중세국어 이후 /O^h/ (격음)는 국어의 자음체계에 존재해 왔으나 /S^h/는 그러지 못한 것이다

3. 서북·서남방언과의 대비

이 장에서는 서북방언과 서남방언에서 진행된 ‘자음-ㅎ’ 연쇄의 변화를 고찰하고 이를 중부방언에서의 변화와 對比하여 그 類似點과 差異點을 밝히도록 한다.

우선 西北方言을 보도록 한다

- (12) ㄱ. 오리(鴨) 동에(盆) 나누-(分)
 ㄴ. 하늘(天) 낚(纜) : 마니(많이) 꼬러(뿔-어)
 (13) [talk^hurn^həda] (달콤하-) [kyər^hon] (結婚) [p^har^him] (팔힘)

먼저 ‘공명음-ㅎ’ 연쇄의 변화 양상을 보면, 形態素 內部에서 어중의 ‘ㅎ’은 탈락한다(12ㄱ). 어간말 자음군의 경우에는 체언과 용언 모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 ‘ㅎ’이 발음되지 않는다(12ㄴ). 체언에서 ‘ㅎ’이 탈락하는 것은 중부방언과 그 기제가 동일하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形態素 境界에서는 ‘ㅎ’이 탈락하지 않는다(13). 다만 음성적으로 볼 때 ‘ㅎ’은 성문이 좁아져(‘속삭임’) 선행 자음과 함께 ‘중얼거리는 소리’를 형성하는데 중부방언과 비교해 성문이 좁아지는 정도(‘ㅎ’이 유성음화하는 정도)가 좀더 큰 것으로 파악된다¹⁶⁾

- (14) ㄱ. 매카-(먹히-) 재파-(잡히-) 나추-(낮추-) , 그피(急히)
 ㄴ. 매캐(木花) 배캐젯(白蝦) 조캐(族下)
 (15) ㄱ. [kwiβ^həda] (급하-) [p'əp'əd^həda] (뻗뻗하-)
 ㄴ. [mad^hyəŋ] (말형) [nuɣ^həŋnən] (육학년) [ib^him] (입힘, 입심)
 ㄷ. [puɣ^han] (北韓) [yag^hon] (約婚) [tʃuɣ^ha] (祝賀) [suɣ^hi] (淑姬, 人名)

다음으로 ‘장애음-ㅎ’ 연쇄의 변화 양상을 보면, 形態素 內部에서는 ‘장애음-ㅎ’

16) 줄고(2004 156)에서는 ‘ㅎ’이 탈락한다고 기술한 바 있는데 이는 잘못이었음을 인정한다 조사된 녹음테이프를 수차례 들어본 결과 ‘ㅎ’은 완전히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게나마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연쇄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형태소 내부에서 이 연쇄가 변화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데 그 방향은 '장애음-ㅎ'격음'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피·사동접미사의 결합할 때에도 이러한 변화는 일어난다(14ㄱ) 또한 한자어 구성에서도 한자어가 언중에게 하나의 형태소로 인식될 때에는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다(14ㄴ). 결국 형태소 내부에서의 변화는 중부방언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形態素 境界에서는 '장애음-ㅎ' 연쇄가 유지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하'의 결합 구성(15ㄱ), 복합어 구성(15ㄴ), 한자어 구성(15ㄷ) 등이다 이때 '장애음-ㅎ' 연쇄가 유지되는 방식은 '공명음-ㅎ' 연쇄에서와 동일하다 ㉞ 'ㅎ'에 선행하는 장애음은 'ㅂ, ㄷ, ㄱ'이며¹⁷⁾ 이들은 각각 유성음 [b, d, g]로 실현된다 즉 후행하는 ㅎ은 'ㅂ, ㄷ, ㄱ'이 유성음으로 실현되는 데에 진혀 장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㉟ 장애음에 후행하는 'ㅎ'은 현대 서북방언에서 실현되는 '공명음-ㅎ' 연쇄의 'ㅎ'과 음성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성문 모양이 '속삭임'이다 또한 ㅎ은 그 독자성을 잃고 선행하는 유성음과 함께 음성적으로 한 음질을 형성하여 각각 '중얼거리는 소리' [b^h, d^h, g^h]에 가깝게 실현된다

이제 西南方言을 보도록 한다.

- (16) ㄱ 오리(鴨) 동우(釜) 나누-~노누-(分)
 ㄴ 하늘(天) 끈(纜) , 마니(많이) 끄러(끓-어)
 (17) [tʰandanəda](단단하-) [ʃimʃiməda](심심하-) [kyəron](結婚)
 [ʃanwa](長靴)

먼저 '공명음-ㅎ' 연쇄의 변화 양상을 보면, 形態素 內部에서 어중의 'ㅎ'은 탈락한다(16ㄱ). 어간말 자음군의 경우에도 체언과 용언 모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 'ㅎ'이 탈락한다(16ㄴ) 체언에서 'ㅎ'이 탈락하는 것은 중부·서북방언과 그 기제가 동일하리라 생각한다 形態素 境界에서도 'ㅎ'이 탈락하는 것으로 보인다(17) 이 점이 중부·서북방언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필자는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17) 'ㅅ'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서북방언에서도 형태소 경계의 '장애음-ㅎ' 연쇄는 음절말 ㅅ>ㄷ' 이후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말해 서남방언에서도 ‘ㅎ’ 탈락이 일어나기 이전에 현대 중부·서북방언과 같은 음성적인 단계, 즉 ‘ㅎ’이 ‘속삭임’의 성문 모양을 형성하고 선행하는 공명음과 섞이어 ‘중얼거리는 소리’를 형성하는 단계가 있었을 것이다. 다만 서남방언에서는 성문 모양이 ‘발성(유성)’으로 바뀌는 변화가 이어지면서 음소적으로 ‘ㅎ’이 탈락하게 된다 변화의 정도면에서 볼 때 서남방언이 중부·서북방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

- (18) ㄱ 미키-(며히-) 재피-(잡히-) 마추-(맞추-) ; 그피(急히) 쇠키(速히)
 ㄴ 조캐(族下) 석카(石化)
- (19) ㄱ [kuibada](급하-) [p'əp'ədəda](뻗뻗하-)
 ㄴ [yugapnyən](육학년) [ʃibo](十號) [kugak](國學)
 [ʃibap](集合) [nogo](綴浩, 人名)
 ㄴ' 부칸(北韓) 야콘(約婚) 추카(祝賀) 구과(菊花)

다음으로 ‘장애음-ㅎ’ 연쇄의 변화 양상을 보면, 피·사동접미사나 부사화접미사가 결합된 어형을 비롯해 形態素 內部에서는 격음으로 변화한다(18ㄱ) 그리고 한자어도 하나의 형태소로 인식되면 격음으로 변화한다(18ㄴ). 이러한 변화는 중부·서북방언과 비교해 전혀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形態素 境界에서는 ‘공명음-ㅎ’ 연쇄에서와 같이 ‘ㅎ’이 탈락하는 것으로 보인다(19). 이 점이 중부·서북방언과의 차이이다. 그런데 그 정도면에서 볼 때 중부방언과의 차이에 비해 서북방언과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장애음-ㅎ’ 연쇄의 변화에서 서북방언과 서남방언은 동일한 길을 걷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공명음-ㅎ’ 연쇄에서처럼 서남방언이 서북방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볼 만한 사실은 서북방언에서의 한자어는 형태소 경계에서의 변화를 좇아 대부분 격음으로 실현되지 않는 데에 반해, 서남방언에서는 많은 한자어들이 격음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점이다(19ㄴ'). 이는 ‘장애음-ㅎ’ 연쇄의 변화에서 서남방언이 서북방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설명과 배치될 수 있는 현상인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것이 서남방언의 독자적인 변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표준어의 차용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즉 이들 단어는 격음으로 실현된 표준어가 서남방언의 화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19ㄴ')에 제시한 단어들의 사용 시기가 그리 오래지 않았음을 보아서도 어느 정도 이를 짐작할 수 있겠다

형태소 내부에서의 변화 양상은 세 방언이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어느 방언에서 이러한 변화가 먼저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동일한 변화가 과연 방언전파에 의한 것이었는지 하는 점은 판단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형태소 경계에서의 변화 양상은 세 방언이 차이를 보인다 다만 서북방언과 서남방언은 정도면에서 차이가 날 뿐 동일한 변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지리적으로 이들 중간에 위치한 중부방언이 전혀 다른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서북방언과 서남방언이 방언전파에 의해 동일한 변화를 보인다고 하기보다는 세 방언 모두 자생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4 결 론

본론에서 중부방언의 '자음-ㅎ' 연쇄가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살펴보고 서북·서남방언의 변화 양상과 대비하여 보았다 이제 세 방언에서 '자음-ㅎ' 연쇄의 변화 양상에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정리하면서 본고를 마무리하려 한다.

形態素 内部에서는 세 방언의 변화 양상이 완전히 동일하다. ㊸ '공명음-ㅎ' 연쇄는 'ㅎ'이 탈락한다 ㊹ '장애음-ㅎ' 연쇄는 격음으로 변화한다. 이를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S 공명음, O 장애음, O^h 격음)

	변화 이전	중부·서북·서남방언
구강 모양	S	S
성문 모양	보통호흡(H)	발성(H)
음성 표시	[SH]	[S ^h]
음소 표시	/SH/	/S/

〈'공명음-ㅎ' 연쇄의 변화(형태소 내부)〉

	변화 이전	중부·서북·서남방언
구강 모양	○	○
성문 모양	보통호흡(H)	보통호흡(H)
음성 표시	[OH]	[O ^h]
음소 표시	/OH/	/O ^h /

〈'장애음-ㅎ' 연쇄의 변화(형태소 내부)〉

形態素 境界에서는 세 방언의 변화 양상이 차이를 보인다. ㉞ '공명음-ㅎ' 연쇄의 변화. 방향면에서는 세 방언이 동일하나 정도면에서 중부·서북방언과 서남방언이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중부·서북방언에서 이 연쇄는 음소적으로 유지된다. 다만 음성적으로는 '중얼거리는 소리'로의 변화를 경험했다 그런데 서남방언에서는 음성적으로 'ㅎ'이 유성음으로 바뀌면서 음소적으로 'ㅎ'이 탈락한다. ㉟ '장애음-ㅎ' 연쇄의 변화. 방향면에서 중부방언과 서북·서남방언이 큰 차이를 보인다. 중부방언에서는 형태소 내부에서와 마찬가지로 격음으로 변화한다. 하지만 서북·서남방언에서는 'ㅎ'이 유성음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다만 그 정도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즉 서북방언에서는 음성적으로 '중얼거리는 소리'로 변화하나 음소적으로는 이 연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서남방언에서는 'ㅎ'이 유성음으로 바뀌면서 음소적으로 'ㅎ'이 탈락한다 세 방언이 차이를 보이는 形態素 境界에서의 변화를 대비하여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변화 이전	중부·서북방언	서남방언
구강 모양	S	S	S
성문 모양	보통호흡(H)	속삭임(H)	발성(H)
음성 표시	[SH]	[S ^h]	[S ^ʰ]
음소 표시	/SH/	/SH/	/S/

〈'공명음-ㅎ' 연쇄의 변화(형태소 경계)〉

	변화 이전	중부방언	서북방언	서남방언
구강 모양	○	○	○	○
성문 모양	보통호흡(H)	보통호흡(H)	속삭임(H)	발성(H)
음성 표시	[OH]	[O ^h]	[O ^h]	[O ^h]
음소 표시	/OH/	/O ^h /	/OH/	/O/

<'장애음-ㅎ' 연쇄의 변화(형태소 경계)>

마지막으로 세 방언에서 '자음-ㅎ' 연쇄의 변화는 방언전파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물론 형태소 내부에서는 세 방언이 동일한 변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형태소 경계에서는 지리적으로 중간에 위치하는 중부방언이 전혀 다른 변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세 방언 모두 자생적인 변화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필자 홍익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강사)

주제어 '자음-ㅎ' 연쇄, 공명음, 장애음, 성문 모양, 경계

투고일(2004 10 30), 심사시작일(2004 11 12), 심사종료일(2004 12 03)

참 고 문 헌

- 김 현(1997), 「15세기 국어 자음연쇄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서울대) 145
- 방언연구회(2001), 『方言學 事典』, 태학사
- 劉昌淳(1964), 『李朝語辭典』, 延世大學校 出版部.
- 李基文(1972), 『國語史概說』, 塔出版社.
- 이현복(1989), 『한국어의 표준발음』, 교육과학사.
- 이희승(1959), 『〈새로 고친 판〉 한글 맞춤법 통일한 강의(綴字法 統一案 講義)』, 신구문화사
- 林錫圭(1999), 「榮州 地域語의 音韻論的 研究」, 『國語研究』(서울대) 160
- 鄭仁浩(2004), 「原平北方言과 全南方言의 音韻論的 對照 研究」, 서울大 博士學位論文.
- 韓國精神文化研究院(1991), 『韓國方言資料集VI(全南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홍윤표·송기중·정광·송철의(1995), 『17세기국어사전(상·하)』, 태학사
- Catford, J.C.(1988), *A Practical Introduction to Phonetics*, Clarendon Press.
- Underwood, H.G.(1890), 韓英字典한영조던 *A Concise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Kelly & Walsh, L'd

<Abstract>

On the Sound Changes of 'Consonant-h' Sequences

Jeong, In-ho*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changing patterns of the 'consonant-h' sequences in Korean(Central dialect) and to compare these patterns with those of two dialects(North-western dialect and South-western dialect).

The main poin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 one morpheme, the changing patterns at three dialects are the same 'h' was deleted in the 'sonorant-h' sequences and 'obstruent-h' sequences changed into aspirates In a morpheme boundary, the changing patterns at three dialects are different Yet difference in the 'obstruent-h' sequences is larger than in the 'sonorant-h' sequences . Phonologically the 'sonorant-h' sequences are maintained at Central & North-western dialect, but 'h' was deleted at South-western dialect And 'obstruent-h' sequences, only at Central dialect, changed into aspirates In this respect, Central dialect is distinguished considerably from the rest of dialects From the dialectological points of view, 'consonant-h' sequences at three dialects can be said to change not by means of diffusion but separately

Key Words 'consonant-h' sequence, sonorant, obstruent, states of the glottis, boundary, Central dialect, North-western dialect, South-western dialect

* Lecturer, Hong-ik University